













조나단 에드워드의 사후에 에드워드의 제자들에게 의하여 형성된 신학이 뉴잉글랜드 신학(New England theolgy)이다.

인간의 전적타락설을 믿지 아니했고, 인간은 교육에 의하여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주의, 개혁주의 신학을 물려주어야 할 사명이 있다. 어렵지만 바른 신앙과 바른 신학을 지켜 보존해야 하고 그리고 후세들에게 물려줘야 하는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다.

들은 최초의 교수(founding professor)인 아치볼드 알렉산더(Archibald Alexander, 1772 - 1851)와 아치볼드 알렉산더의 제자인 찰스 하지(Charles Hodge, 1797-1878).

에서 뛰어난 자질을 갖추었음을 알고 있었다. 스코틀랜드 이민자의 아들인 아치볼드 알렉산더는 어렸을 때 웨스트민스터 교리문답을 배웠지만 공개적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적이 없었다.



### 미국 개혁주의신학의 역사 (3)

이길호 목사 (뉴욕 성실장로교회)



사무엘 홉킨스(Samuel Hopkins, 1721-1803)는 조나단 에드워드의 윤리적 사상을 일관성 있게 발전시켰고, 조셉 벨라미(Joseph Bellamy, 1719-1790)는 구속론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전통적인 신학을 약간 수정하여 인간의 의지의 중요성을 주장했다.

### 뉴잉글랜드신학은 J. 에드워드 제자들이 형성해 19C초까지 개혁신학 지배 New Divinity Theology와 New Haven Theology가 합쳐

미국 독립혁명시대의 법에 대해 영향을 받은 에드워드의 아들인 에드워드 주니어는 "속죄의 통치적인 이론(혹은 도덕통치론, "governmental theory of atonement")"을 주장했다. 속죄의 통치적인 이론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위해 고난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벌하지 않고 인간을 용서하실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를 유지하셨다는 것을 주장이다.

이들의 이상주의와 영국의 낭만주의 학자인 사무엘 테일러 콜리지(Samuel Taylor Coleridge)의 영향을 받았다(사무엘 테일러 콜리지는 18-19세기 영국의 시인, 문학가, 철학자이며 영국에서 윌리엄 워즈워스와 함께 낭만주의 운동의 창시자다). 부쉐넬은 사무엘 테일러 콜리지로부터 인간의 이성과 자유를 강조한 자유주의 사상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학문과 심령의 열정에서 나오는 경건을 함께 갖춘 목사를 양육시키는데 있다. 학문 없는 열정 혹은 열정 없는 학문 모두 교회에 해를 끼친다(The purpose of the Seminary is to unite... piety of the heart...with solid learning; believing that religion without learning, or learning without religion, in the ministers of the gospel, must ultimately prove injurious to the church).

아치볼드 알렉산더는 영어나 라틴어로 된 문학작품을 더 많이 읽었다. 그는 버지니아풍의 고상함(Virginian gentility)과 신사적인 성품, 그리고 목회적인 마음(pastoral heart)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로부터 큰 존경을 받았다. 아치볼드 알렉산더의 프린스턴신학교 재임기간은 39년이었고 그의 영향은 신학교 전반에 걸쳐 넓고도 깊이 있게 퍼졌다. 그는 프린스턴에서 교수로 사역하면서 몇 가지를 강조했다. 먼저 그는 목회적 경건(pastoral piety)을 우선적으로 강조했다. 아치볼드 알렉산더 교수가 처음에는 신학교 모든 과목을 가르쳤지만 다른 교수진이 추가되면서 결국 목회신학(pastoral theology)에 집중했다. (9면으로 계속)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 기타지역 교회

Table with 6 columns and 3 rows of church information. Columns include: 갈보라장로교회, 다민족교회, 몽고메리교회,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벨렐교회, 보스턴장로교회, 새생명안인교회, 안디옥교회, 일간사제자들교회, 앵커리지열린문교회, 영생장로교회, 킬런은누리교회, 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타코마한인장로교회,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Each cell contains church name, pastor name, contact info, and service times.











세계한인기독교총연합회 총평

2022년 2월 4일 개막하는 제24회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인권 개선과 더불어 중국 선교의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신장 위구르와 티베트 등 자국 인권 문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해 미국 등 일부 국가가 보이콧을 선언하는 등 불안하게 시작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림픽은 평화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축제인 만큼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코로나19로 고통 받고 있는 세계인들에게 평화를 염원하는 귀중한 자리가 되길 기원한다.

제 24회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바란다.

지난 2007년 중국 정부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자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 선교사를 대거 추방시키는 '타이핑(台風) 5호'라는 비밀작전을 수행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으며 이 밖에도 지난 2019년 등 선교사 추방사태를 진행해 온 바 있다. 올림픽의 진정한 의미는 인류의 가치와 평화라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치르면서 경제 성장과 더불어 한국교회가 해외선교의 전환점이 되었던 만큼 중국 역시 그동안의 폐쇄적인 종교정책을 철회하고 올림픽 정신을 통한 인권문제를 더욱 관심을 갖기를 바란다.

"고레스 왕 같은 대통령을..."

'변혁한국' · 국민일보 구국급식기도회 온라인서 진행

"고레스 왕처럼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대통령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선교단체 변혁한국(상임회장 황성주 목사)과 국민일보보는 12일 나라와 민족, 대통령 선거를 위한 구국급식기도회를 유튜브와 줌을 통해 진행한다. 황성주 목사는 3일 "연초 다니엘처럼 21일 동안 금식기도를 했는데 한국교회가 다 같이 마음을 모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면 좋겠다는 소망으로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다양한 교단과 교파 소속 교회 2000여개가 기도회에 참석하기로 했다. 황 목사는 "다양한 분에게 기도회를 제안했는데 모두 기뻐했다는 듯 동참 의사를 밝혔다"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어지러운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제안이 반가웠던 것 같다"고 했다. 변혁한국은 참가 교회가 최대 3000곳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회 문 다시 여는 지름길은 공공성 회복"

'제3회 교회와 공동선 콘퍼런스' 에서 의견 개진

한국교회는 코로나19 이후 신뢰를 회복하고 공공의 이익을 지향하는 교회로 성숙할 수 있을지. 도시공동체연구소(연구소·이사장 김영신)가 7일 서울 종로구 새문안교회에서 연 '제3회 교회와 공동선 콘퍼런스'에서는 공공성 회복이 코로나로 닫힌 교회의 문을 건강하게 다시 여는 절경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최근 교계에서 큰 관심을 끄는 '교회 공공성'은 교인만의 교회에서 모두를 위한 교회가 된 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로 거듭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돌아갈 수 없는 세계. 돌아가야 할 복음:공공성을 회복하라'를 주제로 열린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교회가 코로나 이전으로 회귀하려고 힘쓰기보다 복음을 회복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회의 공공성을 생각한다'를 주제로 발표한 김기석 청파교회 목사는 "한국교회의 병명은 공공성에 대한 인식 부족"이라면서 자신이 번역한 신학자 마커스 J 보그의 '예수 새로 보기에 담긴 두 가지 정치적 견해를 소개했다.

김 목사는 "예수 공생애 시절의 유대교는 세상을 기록하는 기준으로 양분하는 정치적 입장을 가졌는데 늘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를 갈라 저편의 존재를 부정하고 나는 의롭다 칭하는 우를 범했다"면서 "상대

변제는 "깨끗한 대통령. 하나님과 국민을 두려워하는 대통령. 고레스 왕 같은 대통령을 세워 달라"는 것이다. 교회의 본질 회복, 성도의 선교적 삶도 기도제목에 포함됐다. 감사로 참여하는 송태근 삼일교회 목사는 '하나의 기도'(삼상 1:15)를 주제로 말씀을 전한다. 송 목사는 "코로나19로 우리 사회가 침체하고 혼탁한 대선 상황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에 힘을 보태려 한다"며 "마음이 슬프다고 고백했던 한나처럼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제안하고 싶다"고 했다. 한기재 중앙성결교회 목사도 "한국교회가 다니엘의 세친구나 노예해방 운동가 윌버 포스가 꿈꿨던 기독교 공동체 '클래팸(Clapham)과 같은 역할을 하는 바람을 전할 것"이라고 했다.

등이 공공성을 해치는 가장 큰 요인"이라면서 "나만 천국 가겠다는 개인적 교회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회복하고 온 우주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교회의 리더십과 규모, 선교적 방향성을 재고해야만 지성인과 젊은이가 교회로 돌아온다"면서 "혁명적 조치 없이는 10년 뒤 교회의 미래를 기약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박영호 포항제일교회 목사는 "1세기 시각에서 종교는 공적인 영역에 있었지만 적지 않은 경우 사적 네트워크에 포함되는 문제가 생겼다"며 "바울 사도는 이를 경고하면서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주의 것'을 강조하며 교회의 공적 역할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예수 이야기와 종말론, 십자가라는 신학의 중심을 붙들어야 하고 동시에 교회 내 젊은이들과의 대화를 통해 건강한 코이노니아를 회복하라"고 조언했다. 김요한 새물결플러스 대표도 "교회의 사사와 사육화

대선에선 부동산 등 경제 이슈 압도

기사연 지난달 개신교인 1000명 조사

기독교인은 오는 3월 대선 이후 정부가 해결해야 할 우선적 과제로 부동산 안정을 꼽았다. 이어 경제성장, 일자리 창출, 양극화 해소, 검찰개혁 순이었다. 한국사회에서 바라보는 교회의 이미지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부정적'이란 응답이 72.5%였다. '긍정적' 비율은 10.5%로 부정적 답변의 7분의 1에 그쳤다.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기사연·원장 김영주 목사)은 개신교인 인식조사 연구를 거쳐 '제20대 대선정국과 지역·성·연령별 개신교인 인구 기준으로 비례 할당 추 출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라

고 밝혔다. 대선 이후 정부의 우선적 해결 과제를 묻는 질문에 1순 위 응답을 기준으로 22.6%는 부동산 안정, 16.7%는 경제 성장, 11.4%는 일자리 창출, 9.9% 양극화 해소, 6.8%는 검찰개혁, 5.1%는 사회통합을 꼽았다. 기사연은 "높은 경제 적 고립감 속에서 치루는 부동산 대선"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사회에서 바라보는 교회의 이미지에 대한 물음에 개신교인의 72.5%는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자신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아니고, 사회가 교회를 그렇게 본다는 의미이지만, 부정적 답변이 긍정적 답변의 7배가 넘었다는 측면에서 한국교회 갱신 노력이 필수임을 확인할 수 있다. 기사연은 "(사회에서 보는) 교회의 이미지가 부정적이란

동반연 "차별금지법과 유사...입법 반대"

'차별행위 시정 없을 땐 과태료' 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차별행위 시정 권고를 따르지 않는 기관 등에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두고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이 입법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차금법)과 같은 법을 제정해 동성애 문화를 반대할 표현·종교의 자유를 막으려는 시도라는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9일까지 국회에 입법 예고된 상태다. 개정안에는 위법한 차별행위 등으로 시정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인권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구제조치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도록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피종진 목사 2월 2022년도 국내 외 성회일정. 1월 저녁 창원은혜교회 (피은혜 목사) 010-4586-8642구정 축복성회... 2월 21(월) 오전 서울기독교총연합회(이사장 김성우 목사) 010-7567-8291 (안내전화 1533-4110)

보다 신속하고 빠르니!! 그리스도의 메신저가 되겠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CKM)의 소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해드립니다.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FAMILI STUDY Food And Microbiome Longitudinal Investigation. NYU 의과대학 웨일리 연구 참여자 모집 안내. 미국 국립보건원(NIH)과 NYU의대 웨일리 연구팀(총책임자: 안지영 교수)은 세계 최초로, 여러 민족의 식습관, 환경, 박테리아와 만성 질병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선교 일기

황은숙 선교사 (엘살바도르)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까”

소박하지만 행복한 아침입니다. 아침 6시에 눈을 뜨면 예수님께 인사하고, 침대에 누워 팔다리 운동을 하고,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게 해서 깊이 들

로 시작하지만 생각해보니 훗날 인간비 판로 수익 관리 등으로 복잡하고, 실수하면 법적인 문제가 생길 것 같아 개별적으로 어려운 가정에 병아리와 닭장을 만들어주기로 했

어나길 바라며 축복기도를 했습니다. 잘 관리를 하여 큰 양계장으로 성장시켜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 해방되길 소망하며 또 다른 가정에 후원의



엘살바도르는 일년중 제일 좋은 계절입니다. 건기라서 모기 파리 각종 벌레들이 힘을 못 씁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주님의 일을 위해 더 힘쓰려고 합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60살에 조기은퇴하고 엘살바도르 산골짜기에서 선교하는 우리 응원하고 존경해주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족, 친구들이나 주변 이웃들에게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까? 어떤 영향력을 미칠까? 나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았다고 여기지만 다른 사람의 기억 속에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남을지 두렵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아프고 외롭고 힘들 때 나를 떠올리며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았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대부분의 선교지가 그렇듯 가난하고 열악한 환경입니다. 저희는 복음과 교육, 구제, 커뮤니티와 협력하여 사역하고 있습니다. 물고기를 잡아주기 보다는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번 1월부터 어려운 가정에 자립경제 사역 중 하나로 양계사업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로 뉴욕 웨이스미션에서 병아리 100마리와 작은 닭장을 지원하여 짓고 있는 중입니다. 큰 공동 양계장? 처음엔 좋은 마음으

습니다. 시범삼아 작년 9월에 사준 100마리 병아리가 벌써 자라서 알을 낳고, 식용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싱글병글 너무 기뻐합니다. 아이들까지 병아리와 친구삼아 노는 모습 또한 예쁩니다.

다 잡아먹고 팔지 말고 꼭 씨앗 병아리 100마리씩 남겨드리며 사업을 키워가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닭장을 다 지었다고 하여 남편과 함께 방문했습니다. 늘 가난과 삶의 무거운 짐 때문에 얼굴이 어둡던 블랑카의 얼굴에 희망으로 웃음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내 손을 잡고 블랑카가 손가락으로 수탉을 가리키며 "그레이스, 저 녀석은 카사노바야." "헉-???" ㅎㅎㅎ 수탉이 노는 꼴을 보면 웃음이 절로 나온다고 합니다. 블랑카는 병아리 닭들을 돌보며 잘 자라나 관찰을 합니다. 일부 일처제하곤 상관이 없는 수탉은 아주 거만하게 여러 암탉들을 데리고 호강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낳은 유정란을 품고 있는 암탉, 4-6주정도 지나면 병아리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가난을 벗

손길이 있기를 기다립니다. 빈곤과 무지로 피폐해진 마을에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희망의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어떤 대가나 보답을 바라지 않고 오직 예수, 생명과 사랑의 순환에 함께하는 것이 생명을 심고, 사랑을 심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농브레데헤수 시 커뮤니티 사이트에 우리 사진과 스토리가 소개되어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특별히 어린아이들의 교육과 문화, 무료급식을 통해 건강을 돌보며 선교하는 선교사의 열정과 헌신에 감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감사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울컥했습니다. 주님만 기억해 주시면 좋다고 여겼는데 함께 하는 우리 엘살바도르 사람들도 하나님 일을 하는 선한 사람으로 기억해주시 위로가 쓰나미처럼 밀려오네요. 할렐루야!

hyj0691@gmail.com

가정선교



이재근 목사 (미주가정선교회 대표)



47. 가정문제의 해결방안

가정선교칼럼의 연재를 시작하면서 공지한 대로, 제1장 가정(칼럼1-30)이 연재되었고, 제2장 가정선교(칼럼31-45)가 연재되었으며, 이제 제3장 가정문제의 해결방안(칼럼46-55)이 격주로 연재될 것입니다. 세 부분으로 나누어 연재하고 있는 가정선교칼럼 중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은 사실상 '제3장 가정문제의 해결방안'입니다. '제1장 가정'이 서론이라면 '제2장 가정선교'는 본론이고, '제3장 가정문제의 해결방안'은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선교칼럼에서 '가정문제의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고 결만 화려하고 속은 텅 빈 모델하우스와 같을 것입니다.

가정은 사회와 교회와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기초단위입니다. 가정의 갈등과 문제로 가정이 무너지게 되면 사회와 교회와 국가도 자동적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이 같이 가정은 가족의 행복과 휴식(쉼)의 터전이고, 가장 소중한 선교지이고, 국가의 국력을 배양하는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가정의 소중함에 관심을 갖고 행복하게 살기위해 노력해야 함을 잊고 가정은 의례히 저절로 되는

칼럼을 적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독자들의 성원에 힘입어 2014년에 "가정선교-하나님의 최대 관심사"(쿠팡)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남가주에서 목회자와 평신도를 위한 7번의 '가정선교세미나'를 3가지 주제(가정, 가정선교, 가정문제의 해결방안)로 강의를 나누어 가지면서 개강 전 2주 전에 미리 마지막 강의인 '가정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한 각자의 소견을 5분간 발표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준비

을 제시할 것입니다. 필자가 제시하는 대안이 모두 옳다고 할 수도 없고 완벽하다고는 더욱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 필자는 미주크리스천신문의 독자, 목회자, 가정사역자, 신학교 교수 등 가정선교 사역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더 좋은 해결방안, 대안이 있으시면 제 이메일로 연락주시면 가정선교 사역에 큰 도움이 될 줄 압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가정문제의 해결방안” 항목을 시작하며 조언을 구함 가정구성원과 교회, 신학교 총체적 관심과 도움 필요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으로 위험한 발상입니다.

가정선교는 가장 시급한 목회현장인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가정문제에 대하여 목회자가 속수무책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학교에서 '가정과 가정선교'에 대하여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가정의 문제들을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커리큘럼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신학교에서 목회상담과 성경적 상담, 그리고 가정사역(Family Ministry)을 전공하고 박사학위까지 받은 사람으로서 가정사역자들과 교회가 이 같은 가정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과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에 마음에 큰 충격과 절망을 받고, 2007년부터 크리스천헤럴드와 7년간, 그리고 미주 최대 기독교신문인 '미주크리스천신문'과 가정선교

해 달라고 공지했지만 준비되지 않았고, 필자는 기발간된 "가정선교-하나님의 최대 관심사"에서 5가지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었지만, 준비한 발표자의 소견들은 이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미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아직 가정선교에 대한 컨셉 자체도 정립되어있지 않고 도서관이나 신학교에서 책자, 논문 등에서도 이에 대한 자료를 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선교세미나 집회광고를 보고 남가주에서 사역하고 있는 가정사역자들과 신학교 교수들도 많이 참석했지만 가정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한 대안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여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필자는 기발간된 저서에서 이미 제시한 5가지 해결방안 외에 최근 수년간 준비한 4가지의 대안을 더 준비하여 다음 주부터 연재되는 칼럼에서 9가지의 가정문제의 해결방안

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딤후3:16)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기도의 응답과 모든 문제, 특히 다양한 가정의 문제에 대한 해결의 열쇠는 성경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찾기 위하여 성령의 감동과 조명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가정의 모든 문제는 세상의 윤리, 도덕, 철학, 심리학, 상담학 등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가정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위계 질서와 가정의 구성원인 부부와 자녀들이 자신의 위치와 역할, 의무와 본분을 잘 지켜나갈 때 가정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가 힘듭니다. 가정의 구성원 모두가 같이 협력해야 하며 교회와 신학교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jaekunlee00@hotmail.com (562)714-0691

Midwest University advertisement featuring a large image of a university building and a fountain. Text includes: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학점,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최고의 동문을 자랑하는 Midwest University School of Theology', '신학, 목회학 -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 '목회자, 선교사, 기독교 지도자를 위한 리더십 전공 Ph.D. 학위',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국제항공대학(원), 경영대학(원), 국방대학원, 교육대학(원), 리더십대학원, 상담심리대학원, 신학대학(원), 음악, 문화예술대학원', '문의 : 전화 (636)327 - 4645, 이메일 usa@midwest.edu',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Washington DC Campus : wdc@midwest.edu', 'Dallas Site : dallas@midwest.edu', 'Irvine Site : glica@midwest.edu', 'Torrence Site : music@midwest.edu'

